

환영 및 인사말



김미화
Mihwa Kim

GPW 한국회장 | President, GPW Korea

글로벌여성미래포럼 상임대표 | President, Global Peace Future Forum

한·필·일 안녕하세요? 글로벌피스우먼(GPW) 한국회장 김미화입니다.

여성지도자 교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에 한국을 찾아주시고 올해에도 필리핀의 여성지도자분들과 함께 방한해 주신 노나 리카포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평화운동을 펼치고 계신 고바야시 게이코 준-아이 세계평화재단 의장님과 일본여성지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바쁜 공무 중에도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한걸음으로 달려와 주신 한국GPW자문위원이시며 현재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신 황인자 전 의원님, 필리핀여성으로 한국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이자스민 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GPW 활동을 위해 오늘 행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인적으로 후원금까지 전해 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문전숙 GPW세계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전숙 세계회장님을 대신하여 강순옥 GPW세계본부 사무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진수 GPF 아시아대륙 회장님, 아야 고토 일본GPF 회장님, 아드린니트마 필리핀회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스트로서 함께해주시고 계신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서인택 회장님께도 심심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외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한국의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 글로벌피스우먼(Global Peace Women, GPW)은 글로벌피스재단 (Global Peace Foundation, GPF)의 여성파트로, “평화는 가정으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건강한 가정의 실현을 위한 이상적 방안이 대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이자 아내, 어머니로서 지니는 여성고유의 절대적 가치를 드높이고 여성의 가진 따뜻한 감성, 모성애, 유연성, 헌신 등 좋은 장점들이 가정과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발현하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세계 여성들간의 국제학술회의, 자매결연 및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가를 넘어 글로벌이슈에도 여성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필리핀 GPW에서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본 교류 행사는 매우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성지도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서인택 한국GPF회장님의 강연은 내년 2017년 3월 필리핀 아레나에서 개최될 예정인 GPC와 One K콘서트에 앞서 한국·필리핀·일본 3국의 여성지도자들이 우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뜨거운 글로벌이슈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아시아 여성들의 공감대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발표되는 한국, 필리핀, 일본의 주제발표도 여러분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모쪼록 금번 방한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행복한 여정의 만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영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ing Message

Good morning! I'm Mihwa Kim, the president of Global Peace Women (GPW).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who are attending this event to congratulate the Korea, Philippines and Japan Women Leadership Exchange.

I wish to convey sincere appreciation to Dr. Nona Ricafort for visiting Korea in 2014 and also attending this year's event along with women leaders of the Philippines. I also welcome and thank the chairwoman of Jun?Ai World Peace Foundation, Keiko Kobayashi, spreading the peace movement via movies and Japanese women leaders.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Madam Inja Hwang, the advisor of GPW Korea, co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Safety Network for Children and Women and former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o came here to congratulate this event amid her busy schedule.

I also appreciate Mr. Geum Hyeong Lee, the former commissioner of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Ms. Jasmine Lee who, as a Filipina woman, served as a former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pecial thanks to Dr. Jun Sook Moon, the Chairwoman of GPW International, who has not spared any effort to support today's event for GPW activities with great love and attention, though she couldn't attend today. On behalf of Chairwoman Jun Sook Moon, Dr. Soonok Kang, the Secretary General of GPW International, joined us today. Thank you. My deepest gratitude also goes to Chairman Jinsu Kim of GPF Asia, Chairman Aya Gotto of GPF Japan, Chairman Adrin of GPF Philippines and especially to Chairman Intaek Seo of GPF Korea, the host of this event. Last but not least, I thank all the honored guests of Korea traveling all the way to join us today.

Dear women leaders!

Global Peace Women, as the women part of the Global Peace Foundation (GPF), has identified that a large family community is the ideal approach to realize healthy families under the slogan of "Peace is from families", encouraging such community. In addition, it enhances the ultimate values of women as a daughter, wife and mother and helps women realize their good strengths such as delicate sensibility, the mother's instinct, flexibility and devotion as moral and innovative leadership causing social and family transformation.

At the same time, by regularly promoting international symposiums, sisterhood relationships and cultural exchanges among women around the world, GPW is striving to broaden mutual understanding and enable women leadership to be exercised for not only national issues, but also global issues,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world peace. In this regard, today's exchange is very meaningful since GPW Korea and the Philippines continue to work together both in 2014 and this year.

For women leaders attending today, Mr. Intaek Seo, the chairman of GPF Korea, gave a speech introducing the recent One K Global Campaign to draw suppor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UN. His speech would become both a good opportunity and starting point to seek consensus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hottest global issue in recent days, from Asian women as well as enhance friendship of women leaders from Korea, the Philippines and Japan, ahead of GPC and the One K Concert scheduled at Philippine Arena in March 2017.

I expect that upcoming presentations about cases of best activities in Korea, the Philippines and Japan could contribute to your activities a lot, and once again, welcome all the participants today.

Now I would like to finish my welcoming speech, hoping your visit to Korea this time would

become a happy journey and gathering where you support and help each other. Thank you.

축사 1



황인자 Inja Hwang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 | Co-President, International Children Women Safe Network

19대 국회의원 | 19th National Assemblywoman

한·필·일 여성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필리핀과 일본에서 오신 여성지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필리핀과 일본은 한국과 특별한 우정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6.25전쟁때 필리핀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었고 또 기술과 자본도 도움을 받았던 우방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형제나라라 할 만큼 긴 역사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요충지이고 플랫폼입니다.

우리 7천만 한국민은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한 사회를 이루고 사회는 세계로 모이니 가정은 세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 셈입니다. 어느 나라나 우리 여성들은 각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내로, 딸로 살면서 가정을 지켜 왔습니다. 나아가 가정을 넘어 사회로 나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유엔 등 국제사회는 평등과 발전과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여정에 절반인 여성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정과 가족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왔습니다. 다양한 가치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가치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가족의 가치가 무너지고 핵가족, 나홀로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면서 포용적 가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탈하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가정을 꾸렸고 3만명에 달하는 탈북민의 70%가 여성이니 이들의 정착에도 여성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돌보고 보살피는 여성 리더십이 긴요합니다.

무릇 여성은 모성의 본능과 살림의 지혜를 통해 가정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세계평화를 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존재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악예방과 문제해결에도 건강한 가정을 지켜 나가기 위한 헌신적 노력과 사랑으로 평화로운 가족 관계를 유지 해 나가는 데서부터 그 해결점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중심엔 언제나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여성의 리더십이 절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해당되며 그 중심에는 여성 즉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평화는 가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G P W 주최측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필.일 3국의 여성지도자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류의 장에서 변혁적 가정의 가치와 여성의 리더십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1

Women leaders of Korea, the Philippines and Japan! It'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all today.
Women leaders from our neighboring countries, the Philippines and Japan! Welcome to Korea!

Both the Philippines and Japan share a special friendship with Korea. Especially, they are allied nations who have sent a lot of young people to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provided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Japan shares so many historical stories with Korea that we call it a brother nation. Only coul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ring perfect peace to Korea,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Now the Korean Peninsula is the important spot and platform for world peace.

We, 70 million Koreans, desperately want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On the path to reunification, we are showing our capabilities and are devoted to our roles. At the heart of it are families.

A family is regarded as the smallest unit of the world, since families form a society and the society becomes a part of the world. In any country, we, women, have been protecting our families as a mother, wife and daughter. Furthermore, women are showing their leadership in every area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beyond their families.

The global community such as the UN has already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the capabilities and roles of women who account for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on the human journey toward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At the same time, there is the acknowledgement of various household and family values. These various values mean that the variation of the society would lead to changes in family forms and values.

In Korea, the collapse of the value of a large family has been followed by a variety of family forms such as the nuclear family and single-person household, and an inclusive value becomes prevalent. North Korean defectors fleeing the North to settle down in the South have their own families now. Since 70% of the nearly 30,000 defectors are women, women's roles are necessary for their settlement. Women leadership is integral for taking care of families.

In general, with their maternal instinct and wisdom of housekeeping, women are embracing various family values and striking a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in the society, exercising their leadership for world peace. The presence of women itself serves as a deterrent for war and for keeping the peace.

Also, I think that dedicated efforts and love to keep peaceful family relationships c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evils and the solution of problems.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always requires women leadership with the right sense of values. The same goes for every family living in any country of the global village, and what is also in common here is that women's roles, namely mothers' roles, are very important. Given this,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organizer of the GPW who prepared today's event under the slogan of "Peace is from families".

I hope you enjoy a valuable time to share transformational family values, women leadership and cultures with others at this venue of exchange where women leaders of Korea, the Philippines and Japan are gathered.

Thank you.

축사 2



이 자 스 민 Jasmine Lee

전 국회의원 | Former National Assemblywoman

다문화네트워크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 Secretary General, Multicultural & Network Drop Sharing Community

존경하는 3국의 여성지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저의 고국에서 오신 여성지도자님들까지 뵈게 되니 어머니, 언니 동생들 만난 것 같아 무척 반갑습니다.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최해주신 GPW 강순옥 세계사무총장님, 필리핀에서 많은 여성지도자들을 인솔해오신 필리핀GPW회장 노나 리 카포트 박사님, 일본을 대표해서 오신 고바야시 게이코 Jun-Ai 세계평화재단 의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국 GPW 김미화 회장님,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서인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 국가도 세계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도처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테러 등으로 가족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과 여성 아동의 안전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글로벌피스우먼이 이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고국인 필리핀은 한국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형제의 나라, 바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6,25전쟁때 필리핀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결국 한국에는 수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고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세계화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안정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첨단과학기술이 말해주듯 현대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굶주림에 고통받거나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인구가 19억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한 쪽에서는 영양과잉에 따른 비만인구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결핍 때문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공평한 지구촌의 현실은 배품과 나눔의 문화 확산이 얼마나 절실한 범세계적 명제인지를 거듭 일깨워 줍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문맹을 없애야 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가정시대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성장하는 다문화가정의 2세3세들에게 올바른 가정의 가치관과 건강한 가족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인 어머니 그것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사회문화의 변혁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GPW가 주창하는 “One Family Under God” 의 비전과 대가족문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사회악을 제거 하자는 미션은 모두가 공감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분단 한반도의 문제는 모든 주변국가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한 맘 한 뜻으로 한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체감함으로써 지구촌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좋은 경험하시고 돌아가셔서 각기 나라 발전에도 큰 공적을 쌓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2

Congratulatory Remarks by Jasmin Lee, th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onorable women leaders of Korea, The Philippines and Japan! Good morning (afternoon/evening)!

I am especially pleased to see women leaders from my homeland as if I meet my mother and sisters. Thank you for coming.

I am glad to meet Secretary General Soonok Kang of GPW International who organized such a meaningful event, Dr. Nona Ricafort, the president of GPW Philippines who led many women leaders from The Philippines and Chairwoman Kobayashi Keiko of Jun-Ai World Peace Foundation who attends this event on behalf of Japan.

I also want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President Mihwa Kim of GPW Korea who spared no effort for this event, Chairman Intaek Seo of GPF Korea who gave his unstinting support for this event, and all the relevant people and participants.

All humankind is born from a mother who establishes a household and lives with her family. Peaceful nations and a peaceful world could be achieved only by peaceful and stable families; the very basic unit of the society. But then, there have been causes to break the peace of families all around the world, and especially, wars have led to misfortune, disbanding families and producing orphans. At this point in time,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amily, women and children problems in common. In this regards, it is very encouraging that Global Peace Women is playing a central role to tackle such problems.

Especially in my homeland The Philippines, as a brother nation, maintains an indispensable relationship with Korea.

Since many young Filipino men shed blood during the Korean War,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friendly nations that help each other. The Korean War has created separated families, and man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fled the North to the South to find their families even now. Furthermore, Korea also is facing challenges caused by multicultural families.

While the modern civilization is making great progress and science is on the cutting-edge, statistics still show that 1.9 billion people on Earth starve to death. People die from food consumption on one side of the global village, while people die of hunger on the other side. Looking at such an unfair reality, I think that the haves should help the have-nots, illiteracy should be eradicated, and women should take responsibility to care for children.

I firmly believe that mothers, as women, should spearhead the correction of wrong social cultures so as to inculcate the growing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proper family values and healthy family cultur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 think we all should agree on and cooperate for GPW's vision of "One Family under God" and mission to eliminate social evils via healthy families achieved by the culture of a large family.

This year's gathering of women leaders from Korea, The Philippines and Japan requires women's roles and leadership especially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 I believe it is a great program where all participants could cooperate in harmony more than any other event.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fects all neighboring countries, we could no longer dismiss it as another country's issue. I hope that via this event, women leaders from the three countries could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experience the tragedy of national division, while contributing to the peace of the global village.

Lastly, I wish all of you could have great experiences during your stay in Korea and work hard for the development of your own countries after you return. Thank you.

축사 3



김진수

Jinsoo Kim

GPF 아시아대륙회장 |

Regional President, Global Peace Foundation Asia Pacific

존경하는 GPWoman Korea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필리핀 여성 지도자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필리핀 여성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GPF세계본부와 아시아 대륙의 모든 회원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글로벌 여성지도자들의 공동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평화실현' 이란 주제하에 이렇게 양국의 정세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2014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로 한국 필리핀의 주요 여성지도자들의 교류의 장이 지속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역사적 관계는 그 신뢰와 우정의 깊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깊고 강한 형제 자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당시 7500여명의 젊은 필리핀의 형제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이 땅을 찾아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분들의 가족들의 지원과 인내가 한반도의 평화의 기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의 세계는 아직도 국지전과 테러, 국가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위기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인류가 한 형제로서 서로 고민하며 궁극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GPF는 "하나님아래 인류 대가족", One Family Under GOD의 비전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종교갈등, 빈부격차, 세대간의 몰이해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지도자들과 협력하며 해결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GPF Korea와 GPF Philippines은 올리브 릴리지 활동을 통해 전기가 없는 필리핀의 마을들에 태양광 랜턴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제공, 생활환경 개선 운동등 종합적인 협력 관계를 수 년 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그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필리핀의 교육부와 Samsung Philippines, Fedex, Rotary club등 다양한 파트너들의 협력 속에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도 KOICA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오늘 여기에 모인 필리핀의 여성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을 형제자매의 아픔으로 느끼며 형제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하나된 통일의 나라를 이루기를 모두 소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아 이번 일정가운데 통일의 중요성을 더욱 체험하고 이후 필리핀에 돌아가서도 남북통일운동에 일조를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GPF가 다양하게 벌이고 있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남북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는 내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One Dream One Korea 를 위한 1K global concert에 동참합니다. 그 행사는 동시에 마닐라에서 개최될GPF의 Global Peace Convention과 함께 필리핀의 많은 젊은이와 지도자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 하게 될것이며 One Dream One Korea One Dream One World 를 위한 귀한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한국, 필리핀, 일본에서 오신 여성 지도자 여러분, 세계평화는 이곳 한반도의 분단의 끝을 보는 평화적 통일을 통해 보다 가시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작은 시작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한국 필리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염원에서 출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그 초석을 만드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moral & innovative 한 여성지도 자로서의 소중한 국가간 연대를 구축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3

Greetings to our Distinguished Delegates!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extend to you all, a very warm welcome on behalf of the Global Peace Foundation to the 2016 Global Peace Leadership Exchange in Seoul, Korea with the theme: Realizing Peace in Asia and Korea Unification through Collaboration of Global Women Leader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and time to come together and discuss solutions to pressing challenges of our society with our mutual interest to create a better world for succeeding generation.

It is gratifying to note that the agenda of the Exchange Program covers a wide range of very important items in the area of Realizing Peace in Asia and Korea Unification through collaboration of different sectors of our society.

The Global Peace Foundation acknowledged the indispensable value of women as daughters, wives and mothers that uplifts the innate value of femininity, as the Global Peace Women promotes the extended family ideal to build healthy families and encourage women's transformative leadership in their families and in the greater community.

In a spirit of true cooperation, we in the region, is proud of all th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of the Global Peace Women in the Philippines and for the action-oriented efforts to solve different challenges. Encompassing the economic, social, institutional and physical elements of community,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a wider sense of creating a true impact in the society.

We wish success to everyone in our deliberate and noble endeavors in providing innovative and values-based approach to peace building, guided by the vision of One Family under God and a very pleasant stay in Korea.